



오른쪽 강유남 목사, 왼쪽 김봉택 장로

주예수사랑교회 김봉택 장로 임직식

주예수사랑교회(담임 동사 강유남 목사, 담임 동사 황용석 목사)는 8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김봉택 장로 임직식을 거행했다. 강유남 목사는 디모데전서 1장 12-16절을 본문으로 직분을 맡은 자 리는 제목으로 "직분을 맡은 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삶에서 본이 되어 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강유남 목사는 "14년 전에, 아내와 함께 레오니아에 있는 빵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김봉택 성도를 만나 전도를 했다. 지나온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장로로 장립 받게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본인이 전도하여 장로가 되도록 가르치고 성장시킨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